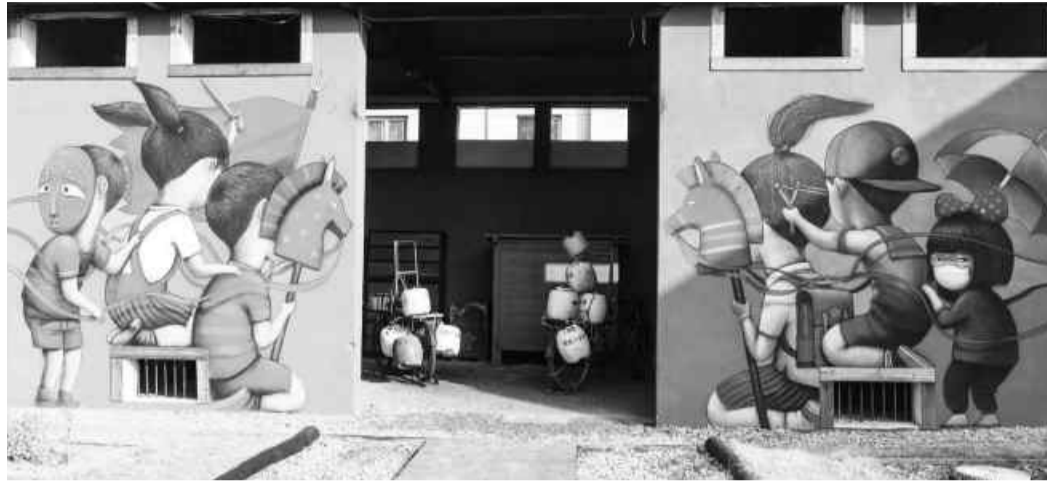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앙코르 해동'

팝·클래식·뮤지컬·국악 등 펼친다

26일 윤선애·최한솔 등 무대
4월 30일 박동실 판소리 여행
음악가 하림, '구각노리' 출연
연극·재즈도 대기...무료 관람



주요장을 리모델링한 담양해동문화예술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열린다.

오래된 주조장을 리모델링한 담양 해동문화 예술촌(담양읍 지침1길 6)은 개관 이후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는 전시 공간 아래아갤러리 어린이를 위한 문화 예술행사가 열리는 소동동, 옛 교회를 문화공간으로 꾸민 오색동, 넓은 마당 등 공간을 활용해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예술로 문화를 빛나는 곳' 해동문화예술촌이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앙코르 해동'을 진행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후 5시)에 개최하는 '앙코르 해동'은 팝, 클래식, 재즈, 뮤지컬, 연극, 국악 등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오는 26일 열리는 올 첫 행사 '자유는 그 꽃을 향한 미소'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의 가수 윤선애와 기타리스트 최한솔, 시인 임의진이 함께 하는 무대다.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출신으로 노래운동에 참여하며 민주화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노래를 불러온 윤선애는 지난해 열렸던 윤상원 열사 관련 전시 등에서 공연을 펼쳤다. 노찾사 음반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그날이 오면', '벗이여 해방이 온다' 등이 담긴 독집 음반 '민주주의의 노래'를 출판했다. 함께 무대에서는

클래식 기타연주자 최한솔은 지난해 해 첫 독주회를 열었으며 윤선애와 호흡을 맞추며 활동하고 있다.

4월 30일에는 '판소리창:서편제 박동실제 심청가'를 통해 담양 출신 명창 박동실에게서 이어진 판소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5월에는 '하림의 낮고 따뜻한 음표'가 열린다. 아프리카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월드 뮤직을 섭렵하고 있는 뮤지션 하림의 감상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6월과 7월에는 연극과 뮤지컬을 만날 수 있는



윤선애

무대다. 연극 '남도풍 코미디극 딸기가 사라졌다'와 바람꽃 연극 '플레이의 '흑부리 영감&뮤지컬 갈라쇼' 공연이 펼쳐진다.

또 국악공연 '구각노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국악, 풍류대장' (10월)에서는 모래 (해금·보컬), 원익준 (풍물대장), 피트정 (기타), 이어람(거문고)으로 구성된 국악그룹 '구각노리'를 초청, 새로운 국악의 세계를 만난다.

클래식 공연도 열린다. 11월에는 클래식 음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흐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바흐로 부터...위로와 희망' (11월)이 대기중이다. 올해 마지막 공연은 재즈 무대다. 12월 28일 열리는 공연은 '재즈 그룹 비스 코스티와 함께하는 리브 스토리'로 꾸며진다.

무료 관람. 문의 070-4185-863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평론가 김정배 '라그랑주 포인트에서의 시 읽기' 펴내

2017~2020년 한국 현대시 조명

'달마음조각기'라는 별칭을 지닌 문학평론가 김정배 시인이 비평집 '라그랑주 포인트에서의 시 읽기' (문학들)를 펴냈다.

제목부터 생소한 '라그랑주 포인트'는 우주의 휴게소라고 불리는 곳이다. 중력에 묶여 천체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일컫는다. 이 공간은 어떠한 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0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학적 표현으로 하자면 '라그랑주 포인트'는 시적 사유의 무중력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의 표현대로 하면 '김수영이 노래한 '달나라의 장난'과도 같은' 곳인 셈이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 같은 것을 사유하게 하는 시의 별세계라 할 수 있다.

이번 비평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문단에 발표된 한국 현대시를 대상으로 한다. 저자는 시의 이론에 맹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되도록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읽어간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정병근, 강연호, 김경미, 최서진, 김내일, 김백형, 이필, 김선재, 정선우, 이병률, 손택수, 차주일, 서윤후, 박문영, 문정영, 민구, 김효선, 최금진, 김상호, 김나영, 전영미, 조용미, 서연우 등의 시를 조명한다.

전북 진안 출신의 김정배 시인은 원광대 문예창작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2년 사이버신춘문예 시부문으로 등단했으며 2019년 월간 '시인동네' 신인문학상 평문 부문에 수상했다. 현재 원광대 융합교양대학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시평집 '나는 시를 모른다', 시화집 '이별 뒤의 외출', 그림책 '이상형과 이상형'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창비, 황인찬·김현 시인 진행 팟캐스트 '복복서로' 공개

출판사 창비가 독자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팟캐스트 '복복서로'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복복서로'는 '서로 책'을 함께 읽자는 의미를 담았으며 CBS,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을 하던 황인찬 시인과 KBS, EBS 등 라디오 프로그램 단골 게스트인 김현 시인이 진행을 맡았다.

작가를 초대해 이야기하는 '서로 어서오세요', 신간을 소개하는 '복복 책매달', 시청자들 사연을 받아 두 시인이 이름을 지어주는 '시인 작명소', 지금 읽어야 하는 시를 추천해주는 '시로서로'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1일 첫 방송에는 '서로 어서오세요' 첫 게스트로 박준 시인이 출연했으며 오는 15일 방송에는 '백(百)의 그림자'를 출간한 소설가 황정은을 초대해 작품 안팎의 이야기를 나눈다. 매주 화·목요일 30분 내외 분량으로 팟빵, 팟터, 네이버 오디오클럽, 아이튠즈 팟캐스트 등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아이들과 만든 음악, 값지고 소중한"

KBS 2TV 새 예능 프로그램 '아기싱어' 출연 정재형 작곡가

어린이날 제정 100년, K-동요 열풍을 이끌 주인공은 누가 될까.

12일 첫방송된 KBS 2TV 새 예능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이하 '아기싱어')를 연출한 박지은 PD는 최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동요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선생님들과 흥 많고 기 많은 14명의 어린이가 동요를 만들 예정"이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유치원을 콘셉트로 만들어진 '아기싱어'에는 코미디언 김숙과 문세운이 원장선생님으로, 정재형·장윤주·이석훈·기리보아·이무진이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만들 프로듀서이자 선생님이 나서 어린이 출연자들과 호흡을 맞춘다.

'아기싱어'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이력의 프로듀서들이다.

'파리디자이너' 작곡가 정재형, 모델 겸 가수 장윤주, 발라드 대표주자 이석훈, 래퍼 겸 프로듀서 기리보아, '싱어게인'이 낳은 스타 이무진까지. 나이도 추구하는 음악 장르도 서로 다른 이들이 아이들과 어떤 곡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모인다.



'아기싱어' 출연진인 이석훈(왼쪽부터), 정재형, 장윤주, 이무진, 기리보아.

BTS 서울 공연 75개국 영화관 3711곳서 중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약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연 콘서트 열기가 전 세계 75개 국가 및 지역 영화관에서도 이어졌다.

13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전날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서울'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 2회차 공연이 전 세계 75개 국가 및 지역의 영화관 3711곳에서 실시간 중계됐다.

BTS의 이번 공연은 2019년 10월 월드투어 이후 약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열린 대면 콘서트다.

지난 1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막을 올린 콘서트는 온라인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인 12일 공연은 전 세계 영화관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뷰잉' 행사가 함께 이뤄졌다.

그 어느 때보다 티켓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라이브 뷰잉'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팬들이 '아미밤 상영회'가 열린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의 경우, 지난달 예매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440여석이 매진되기도 했다.

BTS는 오는 4월 3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후보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8~9일과 15~16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라스베이거스 얼리엔트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열고 다시 한번 팬들과 만난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